

#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 일 예 배 2025년 8월 31일 오후 1시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 찬송가 8(신) 9(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내 주의 보혈은 / 찬송가 254(신) 186(구)

기도 / 한미숙 권사

성경 봉독 / 골로새서 3장 1,2,10,15-17절 / 다같이

내 인생의 찬송 /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박화신 목사

말씀 선포 /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 박화신 목사

찬송 /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 찬송가 452(신) 505(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이 천지간 만물들아 / 찬송가 5(신) 3(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원함과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기를 바라십니다(골 3:1). 그 이유는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며 그 기준은 주님의 형상입니다(골 3:10).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지식으로 삼고, 찾는다는 것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지요.

2. 그 실제적인 삶의 예를 우리에게 줍니다. 평안이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의 사람이 되며, 말씀이 충만하고, 찬송을 통해 모범을 보이며, 감사의 찬양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며, 결국 예수의 힘으로 감사하는 삶을 말합니다.

3. 우리가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구원이란 말은 영원한 소망을 지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원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는 것이며,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닌 영광스런 신적 자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생명샘 장로교회 2025년 표어

디모데전서  
4장 15-16절

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 내 인생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박화신 목사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기쁨 때나 힘들 때나 그리고 슬플 때도 언제나 제든지 부르면 그렇게 힘이 되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 저의 찬송곡입니다.

그리고 가족 찬송으로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와 함께 많이 애창 되었던 노래이지요. 음악적으로는 별 그리 매력 있는 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쉽게 화음을 기억할 수 있어 서인지 온 가족이 다 모이면 더욱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만큼은 아니지만 저에게 아버님, 형님을 많이 생각나게 하는 찬송곡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1절은 부를 때마다 죄악 된 저의 모습을 고백하게 하지요. 죄사함을 노래하지만 동시에 저의 마음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함을 바라보게 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일 마지막 되풀이 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는 천국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수시로 밀려오는 건강하지 못한 책임감에 지쳐 있을 때에 한 성도로서 주님 앞에서 큰 위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2절은 큰 도전이 되어 '자극'의 선물을 주지요.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맘 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그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아버님의 삶을 말하는듯한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어렸을 때는 아버님이 '든 사람' 혹은 '난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신 핑계로 여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려 했던 아버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는 이 485장(구)은 웬지 부엌에서 라면 끓이면서는 그냥 못부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진지한 인생 예배가 되어버린 정말 귀한 저의 찬송입니다^^

## 생 명 생 소 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라는 표어로 남은 귀한 시간들을 계속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으로 성숙해지는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오는 금요일 9월 5일 저녁 8시에 금요 성경공부 골로새서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5. '내 인생의 찬송' 을 하나 정하시길 바랍니다.
6. 다음 주일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성찬식 있습니다.

### 7. 이번 주 기도제목

강승우 선교사님(파라과이)을 위해(원주민 전도에 지치지 않도록)

금요 성경공부(골로새서)에 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교우들의 건강과 기도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 9월 예 배 위 원

안 내	박래석	최명희
기 도	조창(7)	박승화(14) 한광기(21) 최명희(28)

###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은 위기감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성도)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전의 것을 우리는 세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타락한 죄성을 의미하지요. 바울은 그것을 아래 것이라 말합니다. 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아래에서 삽니다. 하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래의 세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소명을 받은 성도의 사명이지요. 주님께서서는 이 일을 빛과 소금에 견주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특별하고도 완벽한 도구가 바로 말씀이지요.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과 친숙해질수록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악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타협할 자격이 없고 권한이 없습니다. 말씀의 모든 기준은 절대적이며 냉정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만들 자격이 없으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타협함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지요. 왜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나요.

감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공급 받는 영적 은혜가 없는 감사는 거품이요 가짜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요, 말씀입니다.